

혼조세 속의 팽팽한 줄다리기: 빅테크 실적 대기 vs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미·이란 충돌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알파벳(구글) 실적 경계감이 맞물리며
글로벌 증시는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시장을 지배한 3대 핵심 동인



Pillar 1

지정학 & 에너지 리스크

11일 연속 공급, 치솟는 유가

- 미·이란 강대강 대치 지속



- WTI \$86.40 돌파, 브렌트유 장중 \$94 터치



- 중국 원유 수입 급감 변수 상존



Pillar 2

통화 정책 & 매크로

흔들림 없는 매파 기조

- 미 국채 10년물 금리 4.09% (+5bp) 상승



-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한 금값 장중 강세 (\$103,000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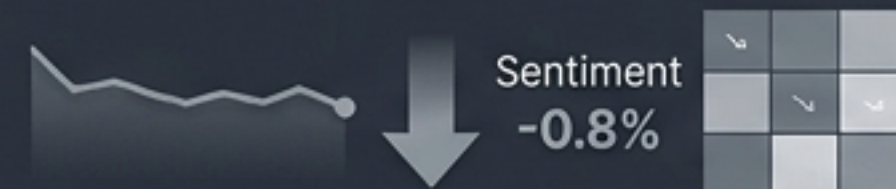


Pilla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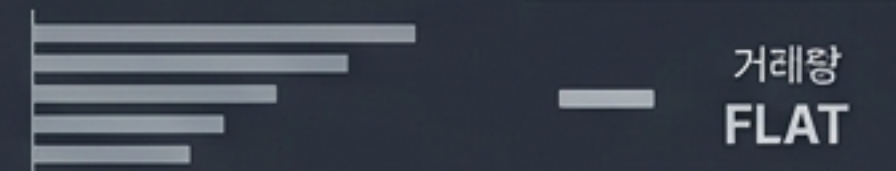
실적 모멘텀

다가온 빅테크 심판의 날

- 알파벳(구글) 실적 발표 임박에 따른 선제적 차익실현 출회



- M7 실적 대기 심리가 글로벌 증시 전반의 상단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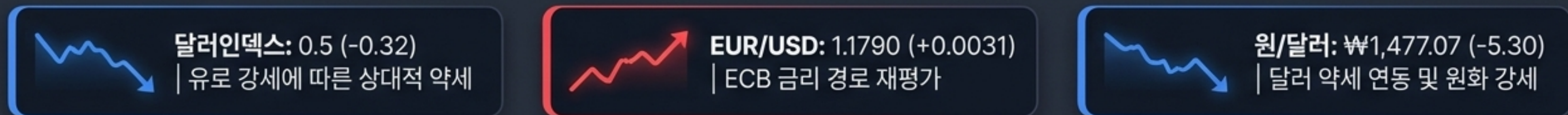


FICC 매크로 다이내믹스: 리스크 오프(Risk-Off)와 인플레이션 헷지

Causal Flowchart



FX Dashboard



글로벌 시장 디커플링: 방어와 테마장세 vs 실적 경계감

글로벌 시장 - 테마장세 주도 ↗

유럽 ↗ DAX (+1.64%), FTSE 100 (+1.64%)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감 속 방산주 강세 주도

아시아 ↗ 닛케이 225 (+1.64%),
홍콩 항셱 (+1.64%), 상하이 (+0.45%)



엔화 약세 수혜 및 알리바바 이후 최대 AI 대장주 부각

호주 ↗ ASX 200 (+0.52%)



자원주 중심 상승

미국 시장 - 기술주 차익실현 ↘

S&P 500 (-0.14%),
NASDAQ (장중 -0.6% 약세) ↓



유가 급등과 301조 관세 정책 우려로 하방 압력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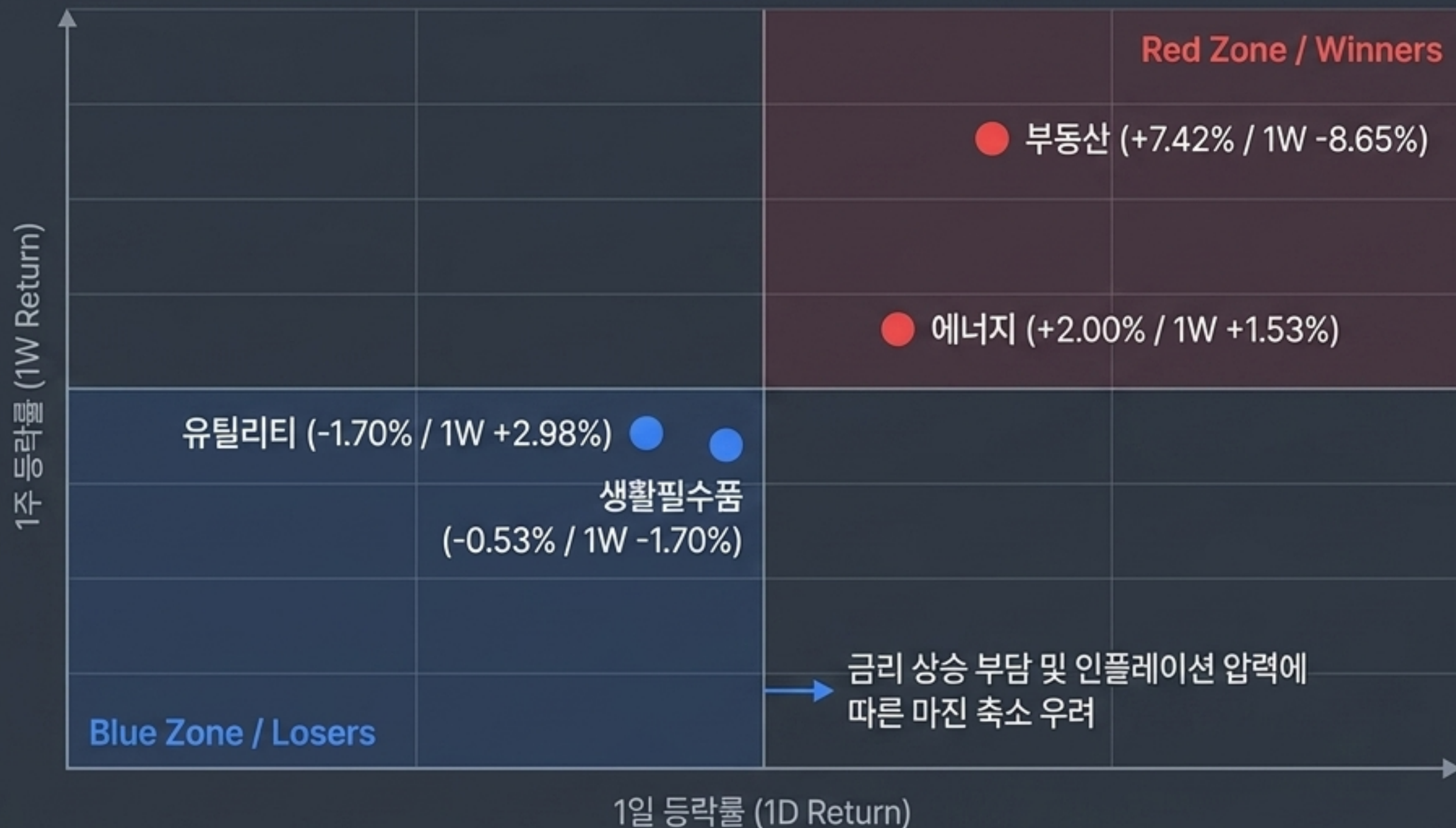


서학개미 귀환 🐂 +4조 원

이달 들어 4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미국 주식 하방에서 저가 매수 시도 중

미국 증시 내부 로테이션: 실물 자산의 반격

2x2 Scatter Plot Matrix



주간 낙폭 과대에 따른 강력한 저가 매수 및 유가 연중 최고치 돌파 수혜

⚠ Key Anomaly

성장주 내 극심한 차별화

사이버보안주는 급락한 반면, SMCI와 코어위브 등 특정 AI 인프라 주식은 급등하며 종목 장세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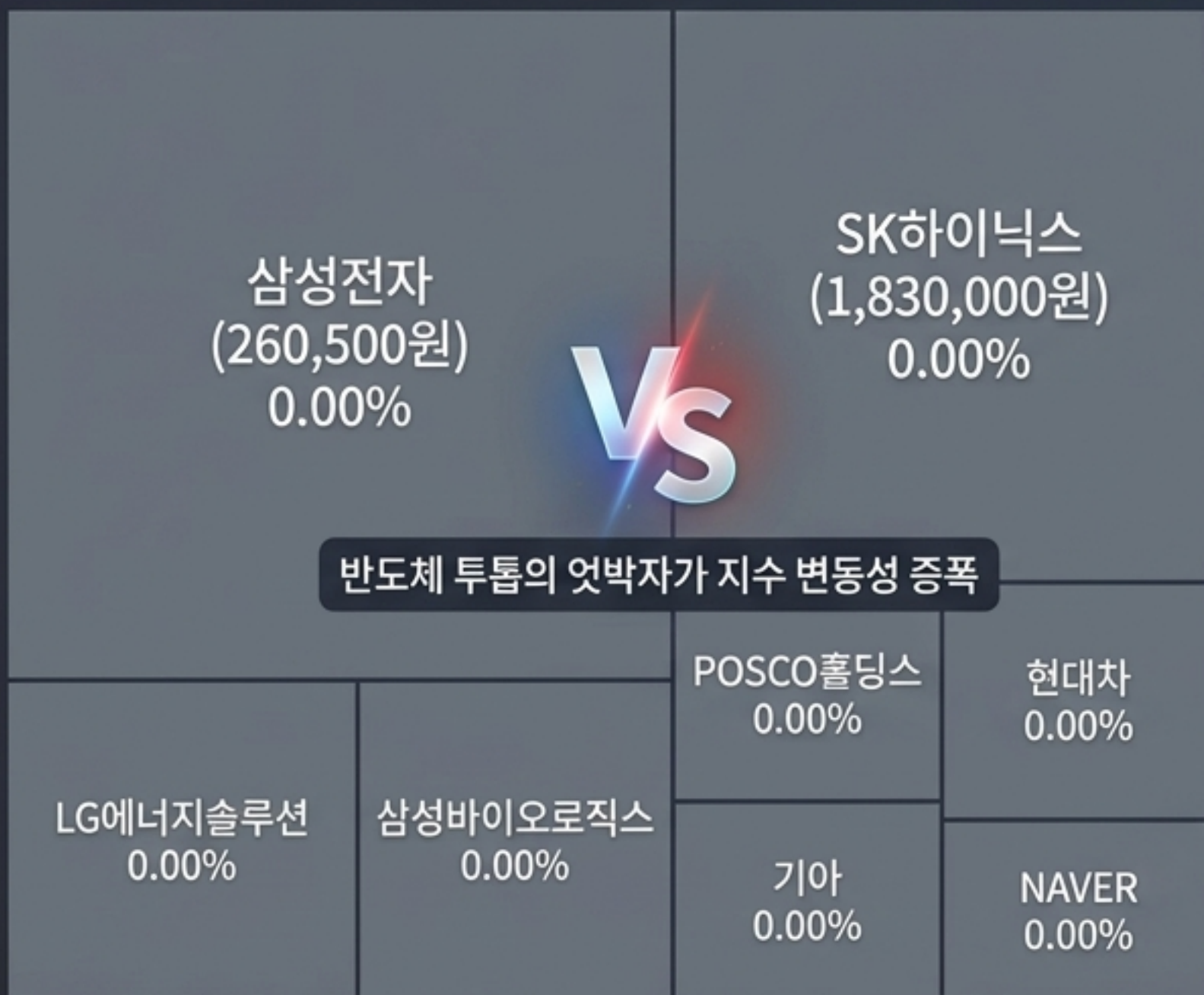
KOSPI 롤러코스터 장세: 7,100선 터치 후 전면 후퇴



지수는 변동이 없었으나,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0.00%의 하루.

국내 증시 엑스레이: 극명하게 엇갈린 섹터와 대장주

국내 증시 Top 10 X-Ray (시가총액)



Sector Bar Chart



이번 주 핵심 촉매제 : 빅테크 실적 슈퍼 위크



알파벳의 성적표를 시작으로 MSFT, META로 이어지는 M7의 실적이
나스닥의 단기 방향성과 코스피 AI 관련주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입니다.

임원진 요약 및 3대 투자 전략 매트릭스 (Strategic Play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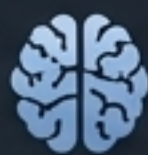
[조건 (If)]

[통찰 (Insight)]

[액션 플랜 (Action)]



알파벳, MSFT, META 실적
발표로 인한 나스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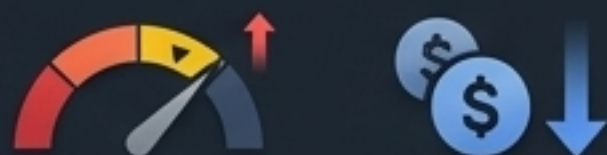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및
옥석 가리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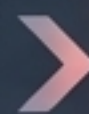
AI 대장주 및 우량 기술주
단기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



미 10년물 국채 금리 4.09% 터치
및 달러 약세/원화 강세 (1,477원).



금리 인상 장기화 기대감 및
환율 효과 발생.



미국 채권 비중 확대 및
우량 고배당주 선별
포트폴리오 편입 검토.



유가(WTI \$86.4) 및
금(\$103,000) 동반 지속 상승.



위험 회피 심리 극대화 및
원자재 인플레이션 압력 부각.



에너지/자원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 접근 및 포트폴리오
헷지용 금(Gold) 비중 확대.